

4·11 총선 돋보기

(4) 명함 돌리기-전화걸기 진담

명함돌리기 20만장·하루 전화 100통씩

명함 돌리기는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코스다.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형적인 선거 운동이다.

유통 인구가 많은 상가나 마트 인근, 지하철 역사, 각종 행사장 앞이 주요 포스트다. 주말에는 교회나 성당 등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다. 이리다 보니 각 예비 후보자들 간 조우도 이뤄지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명함은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운동원 2명이 배포한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거 기간 동안 명함은 20만장, 적게는 10만장 이상의 명함이 소요된다고 한다.

명함 돌리기는 현역 국회의원 보다는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이 지역구 바닥을 다지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길바닥 버려진 자기 명함 보면 허탈... 울분...

2~3시간 육성전화 격려 받을때 피로 잊어

법이다.

특히, 명함 돌리기에는 예비 후보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 밤 늦게 상가를 돌며 명함을 돌리다가 유권자들에게 '술 맛 떨어진다'는 냉소를 받기도 하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상가를 돌고 나오면서 길바닥 여기 저기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명함을 보고 눈물이 핑 도는가 하면 명함을 소중히 호수머니에 넣고 가는 유권자를 보면 안아주고 싶기도 한다는 것이 정치 신인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명함 돌리기가 정치 신인들이 극복해야 할 '풍파의례'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광주 모 예비후보는 "추운 겨울, 지저분한 길과 상가를 돌며 명함을 돌리다가도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받으면 모든 피로가 풀린다"며 "힘들기도 하지만 바다 민심을 다지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명함 돌리기'는 필수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말했다.

예비 후보들은 '전화 돌리기'에도 적극적이다. 지역구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하다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목청이 큰(?) 유권자 확보는 지지세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로열티가 강하고 안방과 동네 정치를 통한 전파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전화 돌리기는 예비 후보자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하루 평균 100통, 2~3시간 정도의 진행된다. 전화 통화는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 식사 이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며 학원, 지연, 혈연 등을 매개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모 예비 후보자는 "매일 정해진 전화를 마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라며 "그래도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양자구도서 박근혜 첫 추월

리얼미터 조사 결과, 44.9% VS 44.4%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인 대선주자 양자구도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월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양자 대결에서 문 고문의 지지도는 44.9%, 박 위원장(44.4%)을 0.5%포인트 차로 제쳤다.

오차범위(±1.6%) 이내지만, 양자 대결에서 문 고문이 박 위원장보다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박

위원장(58.1%)이 문 고문(30.1%)보다 두 배 가까이 앞섰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최근까지 안철수 원장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야권 지지층이 총선·대선에서 문 이사장을 야권 대안으로 선택해가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과 안 원장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 원장이 51.5%를 얻어 박 위원장(40.0%)을 11.5%포인트 차로 앞지르긴 했지만, 두 사람의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5.7%포인트 줄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박 위원장이

31.2%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안 원장이 21.2%로 2위, 문 고문이 19.3%로 3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손학규 민주당당 상임고문(4.7%),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3.6%) 등의 순이었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의 격차는 지난주 5.8%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좁혀졌다. 문 고문은 1월 초부터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임의변호결기(RDD) 방식과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권정책 대시민 토론회

7일 광주시 5·18교육관에서 광주시가 주최한 '인권분야 대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 관련 기관·단체 및 인권운동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의 인권정책과 계획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제공>

“정개특위 정상화에 응하라”

민주, 새누리당 압박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 사항을 반복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개특위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 개특위 현안 합의를 압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모바일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경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간사안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당일 SNS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허용도 당초 간사안 합의

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대로 국회의원 추수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종시를 포함해 4개의 지역구를 신설하고 4개의 지역구를 줄이는 ‘4+4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8일 정개특위 공직선거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을 요구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개특위 최초로 표결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제에 인권 묻혀서는 안돼”

강철규, 공천면접 인간중심 예고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은 지난 6일 공천후보자들에게 제시할 3가지 공천기준 가운데 “경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반세기 이상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놓다 보니 웅심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불에 타 희생되는 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경제성장만 앞둔다면 인권이 묻혀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새 세대에는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원우 공심위 간사는 “강 위원장이 공천거래위원장을 지내고 경질된 활동을 하다 보니 최근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장점이 나타난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젊은이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묻

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는 모두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실현방법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민의 아픔을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가슴으로 느끼는지를 보고 싶다”면서 “가슴으로만 느껴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후보자라면 적어도 제도적,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문은 공천 심사의 최우선 과제인 정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심사에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정력도 중요하리 앞으로 공심위원들과 함께 (반영도를)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뉴스

안철수 기부 주식 86만주 다음주 매각

100만주 현물 기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7일 가진 안철수재단에 출연할 주식 186만주 중 86만주는 매각 후 현금으로, 100만주는 현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86만주는 다음주부터 매각에 들어가 재단 출범 전에 매각을 완료한 후 현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안 원장이 기부하는 주식 186만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인 주당 13만900원 기준으로 2435억원이며, 주식시장에 매각하는 86만주는 1126억원 상당이다.

안 원장은 당초 186만주 모두를 현물로 기부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재단 운영시 현금에 필요하다고 보고 86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 기부되는 100만주는 향후 재단 이사인의 관

단에 따라 매각 여부나 용처가 결정된다.

기부가 완료되면 안 원장의 지분은 37.2%에서 18.6%로 줄어들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게 된다. 안철수연구소의 2대 주주인 원종호 씨의 보유 주식은 9.16%다. 안 원장은 “기부 후 남게 되는 나머지 18.6%의 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연구소의 창업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행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Leaders' with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the project.

Table with project details including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ongseongdong Leaders'.

Advertisement for 'Hangeul/Hanwen Instructor Qualification' with details on training and application.

Advertisement for 'National/Local Government Hanmun Specialist' with details on training and application.